

# 2주간 지옥훈련…정재원·조승민, 금빛 질주 준비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매스스타트

한국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매스스타트의 '쌍두 마차' 정재원(의정부시청)과 조승민(한국체대 입학예정)이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과 함께 보낸 2주 의 지옥 훈련을 발판 삼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3개 대회 연속 '매스스타트 동반 메달'의 역사를 써 내릴 준비를 마쳤다.

이번 대회에서 3개 이상의 금메달을 노리는 한국 선수단은 스피드 스케이팅에선 여자 500m 종목의 김민선(의정부시청)과 이나현(한국체대)에게 금빛 질주를 바라는 상황이다.

아쉽게도 장거리 종목에 거는 '금빛 기대감'은 단거리 종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는 않다.

역대 스피드 스케이팅 메달 금빛 계보를 보면 단거리에 메달이 집중됐지만, 2018년 평창 대회부터 등장한 매스스타트가 새로운 '메달밭'으로 떠올랐다.

한국은 2018년 평창 대회에서 이승훈이 금메달, 김보름이 은메달을 목에 걸더니 2022년 베이징 대회에선 정재원과 이승훈이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내는 성과를 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정재원과 조승민은 한국의 3개 대회 연속 매스스타트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특히 세 번째 올림픽에 나서는 정재원은 2018년 대회 팀 추월 은메달에 이어 2022년 베이징 대회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과 집중 훈련  
3연속 올림픽 동반 메달 획득 도전  
김민선·이나현 여 500m 금 기대

매스스타트 은메달을 따낸 터라 사실상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 무대가 될 밀라노 무대에서 반드시 금메달을 수확하겠다는 의지가 끼겁다.

더불어 조승민은 2022년 대회에서 이승훈·정재원 팀비가 매스스타트에서 완성했던 '동반 메달'의 업적을 이어받아 '대선배' 정재원과 나란히 시상대에 오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둘의 인연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오른다.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팀 추월 은메달을 합작한 정재원은 '초등학생 유망주'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조승민이었다.

쇼트트랙에서 시작해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종목을 바꾼 조승민은 유망주로 이름을 날리며 당당히 태극마크를 달고 이번에 올림픽에 데뷔하게 됐고, 공교롭게 8년 전 함께 사진을 찍었던 '대선배' 정재원과 매스스타트에서 경쟁하게 됐다.

질긴 인연이 이어온 정재원과 조승민은 지난 1월 말 함께 펼친 '지옥의 2주 훈련'을 절대 잊을 수 없다.

대표팀에 매스스타트 선수가 2명뿐이라 훈련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대표팀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

2월 말 열리는 2026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를 준비 중인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을 1월 마지막 2주 동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둔 2일(현지시간) 밀라노 스피드스케이팅 스타디움에서 한국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정재원과 조승민의 훈련 파트너로 투입하는 결단을 내렸다.

정재원은 "마지막 바퀴에서 스피드를 끌어올리는 전술만으로는 최근 매스스타트 경기 트렌드에 뒤처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는 방법을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매스스타트에 많은 선수가 출전하는 만큼 둘만의 훈련만으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없다는 판단에 내린 결단이었다.

2주 동안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과 펼친 '실전급 훈련'은 정재원과 조승민의 자신감을 끌어올렸다.

정재원은 "지금껏 훈련해보지 못한 강도로 진행됐다. 1월 마지막 2주의 훈련이 기억에 많이 남는

다. 훈련 성과가 너무 좋았다. 모든 데이터가 좋아졌다"고 강조했다.

정재원은 "올림픽 메달은 그 자체가 영광이다. 2

개 대회 연속 은메달을 따서 이번만큼은 금메달을 따고 싶다. 육심이 생긴다"고 강조했고, 조승민도 "첫 올림픽인 만큼 걱정하지 않고 즐기며 마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상승세 김시우, PGA 피닉스오픈서 시즌 첫 승 도전

5일 개막…김성현·김주형·이승택 등 출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26시즌 네 번째 대회인 WM 피닉스오픈(총상금 960만달러)이 5일 막을 올린다.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의 TPC 스코츠데일 스타디움코스(파71·7261야드)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여느 골프 대회와 달리 음주와 응원, 야유 등이 허용된다.

PGA 투어 인터넷 홈페이지도 이 대회를 '피닉스 오픈'이 아닌 '피플스 오픈'(People's Open)이라는 별칭으로 부르며 그만큼 팬 친화적이고 인기 있는 대회라고 소개했다.

특히 16번 홀(파3) 주위에 설치된 관람대에서는 티샷 결과에 따라 환호와 야유가 특히 유별나기로 유명하다.

올해 대회에는 메이저 대회 우승 경력이 있는 선수 10명, 세계 랭킹 20위 내 선수 11명 등 '빅 네임'들이 대거 출전해 우승 경쟁을 벌인다.

세계 랭킹 스코티 셰플러(미국)는 지난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우승 이후 올해 두 번째 대회에

출전한다.

또 LIV 골프를 탈퇴하고 PGA 투어에 돌아온 브룩스 캠카(미국)를 향한 미국 골프 팬들의 반응이 환영일지, 야유가 주를 이를 것인지 확인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한국 선수로는 김시우, 김성현, 김주형, 이승택이 출전한다.

주목할 선수는 역시 김시우다. 김시우는 올해 앞서 열린 대회에서 소니오픈 공동 11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공동 6위, 파마스 인슈어런스오픈 공동 2위로 상승세를 이어왔다.

2024년 공동 12위, 지난해 공동 21위 등 최근 이 대회 성적도 나쁘지 않았다.

2023년 1월 소니오픈에서 투어 4승을 달성한 뒤로는 우승 소식이 없는 김시우는 "마지막 라운드 까지 버티는 경험을 더 쌓아서 이번에는 꼭 우승까지 이어가고 싶다"며 "피닉스오픈은 관중도 많고, 재미있는 대회인데 최선을 다해 팬들과 함께 즐기면서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PGA 투어에 뛰어든 이승택은 앞서 출전한 3개 대회에서 모두 컷 탈락해 반등이 절실히다.

한편 LIV 골프 2026시즌 개막전은 4일부터 나흘간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골프클럽(파72·7464야드)에서 열린다.

작년까지 3라운드 54홀 대회로 진행된 LIV 골프는 4라운드 72홀 대회로 치러진다.

안병훈과 송영한, 김민규와 교포 선수 대니 리(뉴질랜드)로 구성된 코리안 골프클럽이 첫선을 보인다.

팀 캡틴을 맡은 안병훈은 "멋진 골프를 기대하셔도 좋다"며 "사우디아라비아 대회는 야간 골프가 가장 큰 매력"이라고 LIV 골프에서 첫 대회를 앞둔 소감을 밝혔다.

이 대회는 1~4라운드 모두 현지 시간 오후 6시 15분에 티오프하는 야간 경기로 진행된다.

더스틴 존슨, 브라이언 디섐보(이상 미국), 윤람, 세르히오 가르시아(이상 스페인)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출전하며 지난해까지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서 활약한 교포 선수 이태훈(캐나다)도 올해 LIV 골프에서 뛴다.

김성현이 아슬아슬하게 당시 못했던 '국내 선수 50득점' 고지를 비로소 점령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수지상으로만 보면 허웅의 위에는 여전히 두 명의 이름이 남아있다.

우지원 전 해설위원(70점)과 문경은 수원 kt 감독(66점)이 득점 1, 2위고, 3점 슷 기록에서도 문 감독(22개)과 우 전 위원(21개)이 1,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농구계가 허웅의 '3위'에 더 열광하는 건 기록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 선수 한 경기 최다 득점과 3점 슷 1, 2위 기록은 2003-2004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날이었던 2004년 3월 7일 동시에 쏟아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팬들과 민망한 '기록 밀어주기'가 노골적으로 자행됐다.

## 프로농구 허웅, 22년 만에 50점대 벽 깼다

3점슛 14개·51점…KBL 역대 3위

22년 전 '존극'으로 얼룩진 KBL 국내 선수 50득점의 벽이 마침내 허웅(KCC·사진)의 손끝에서 허물어졌다.

'한 경기 3점 슷 14개, 51점'이라는 진기록을 세운 허웅은 현재 한 경기 득점과 3점 슷 부문 모두 KBL 국내 선수 역대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경기 내용과 기록의 순도를 따져보면 사실상 프로농구 역대 최고 기록으로 꼽히기에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허웅은 지난 2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SK와의 2025-2026 LG전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신들린' 득점쇼를 펼치자 팀의 120-77 대승에 앞장섰다.

이날 기록한 51점은 허웅이 원주 DB에서 뛴 2021년 12월 1일 창원 LG전에서 세운 종전 기록 39점을 훌쩍 넘어선 자신의 한 경기 역대 최고 득점 기록이다.

동시에 2019년 1월 5일 김선형(당시 서울 SK)이 기록했던 기존 국내 선수 역대 3위 기록(49점)을 갈아치웠다.

김선형이 아슬아슬하게 당시 못했던 '국내 선수 50득점' 고지를 비로소 점령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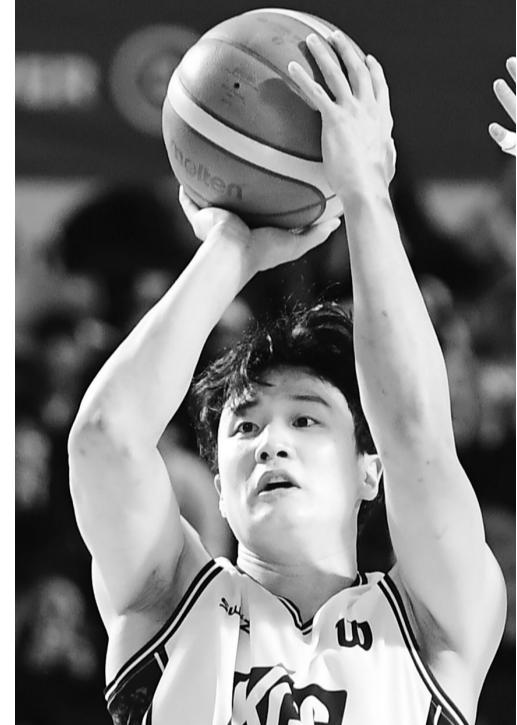
수지상으로만 보면 허웅의 위에는 여전히 두 명의 이름이 남아있다.

우지원 전 해설위원(70점)과 문경은 수원 kt 감독(66점)이 득점 1, 2위고, 3점 슷 기록에서도 문 감독(22개)과 우 전 위원(21개)이 1,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농구계가 허웅의 '3위'에 더 열광하는 건 기록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 선수 한 경기 최다 득점과 3점 슷 1, 2위 기록은 2003-2004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날이었던 2004년 3월 7일 동시에 쏟아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팬들과 민망한 '기록 밀어주기'가 노골적으로 자행됐다.



이미 정규리그 순위가 확정된 시점에서 각 팀이 소속 선수의 개인 타이틀 획득을 돋기 위해 서로 '봐주는 경기'를 한 것이다.

진지한 승부 대신 작위적인 연출로 만들어진 과거의 기록과 달리, 허웅의 51점은 6강 쌔움이 한장인 깊숙한 정규리그 경기에서 탄생한, 차원이 다른 대기록이다.

특히 리그 정상급 수비 조직력을 갖춘 SK를 상대로 상대 집중 전제를 뚫고 세운 수치자 그 '순도'를 이전의 기록과 절대 비교할 수 없다고 평가하는 이유다.

2022년 이후 대표팀과 인연이 없었던 허웅은 마침 현장을 찾은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 니콜라이스 마졸스 감독이 지켜보는 앞에서 강렬한 무력시위를 펼쳤다. 라트비아 출신 마졸스 감독은 한국 남자 농구 최초의 외국인 사령탑으로, 4일 부임 후 첫 국가대표 명단을 발표한다.

/연합뉴스

## 응우옌, 프로당구 데뷔 4년 만에 첫 우승

'베트남 특급' 응우옌구호응우옌(하나카드)이 '스페인 당구 전설' 다니엘 산체스(웰컴저축은행)의 3회 연속 우승을 저지하고 프로당구(PBA) 데뷔 4년 만에 정상에 섰다.

응우옌은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2026시즌 9차 투어 '웰컴저축은행 PBA-LPBA 챔피언십' PBA 결승전에서 산체스에게 세트 점수 4-3(11-15 8-15 15-3 15-9 4-15 15-2 11-4)으로 이겨 짜릿한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응우옌은 마민겸(NH농협카드)에 이어

베트남 국적 선수로는 역대 두 번째로 PBA 투어 챔피언에 올랐다.

우승 상금 1억원을 보탠 응우옌은 노적 상금 1억9850만원으로 종전 상금 랭킹 34위에서 6위로 뛰어오르며 다음 달 열리는 월드챔피언십 진출권도 손에 넣었다. 반면 PBA 최초의 3개 투어 연속 우승에 도전했던 산체스는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다만 산체스는 이번 시즌 랭킹 1위는 굳건히 지켰다.

경기 초반 주도권은 산체스가 잡았다.

산체스는 1세트 11-11 동점에서 4점을 몰아쳐

기선을 제압했고, 2세트에서도 하이런 9점을 앞세워 15-8로 승리해 세트 점수 2-0으로 앞서갔다.

그러나 응우옌은 3세트부터 반격에 나섰다.

3세트를 15-3으로 따내며 이번 대회 산체스의 '무실세트' 행진을 깬 응우옌은 4세트 7-8에서 연속 득점을 터트려 15-9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산체스가 5세트를 15-4로 가져가며 다시 앞섰지만, 응우옌은 6세트를 단 2이닝 만에 15-2로 끝내며 승부를 마지막 7세트로 끌고 갔다.

운명의 7세트, 산체스는 첫 이닝 4득점을 이어 5점을 놓았으나, 큐를 뻗은 과정에서 공을 견드려 파울을 범했다.

공격권을 넘겨받은 응우옌